일제강점기 양복 담론에 나타난 근대인의 외양과 근대소설

김주리*

〈차 례〉

1. 서론
2. 프록코트 신사 : 외양의 근대와 서구화
3. 세비로 청년 : 자본주의 소비문화와 사치
4. 나팔바지 모던 보이 : 댄디의 멋, 데카당스의 퇴폐
5. 색복(色服)의 제국 : 외양의 근대와 식민화
6.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개화기 이후 1940년대에 이르기까지 양복에 대한 지식층 및 대중의 인식과 표상의 변화를 살펴보고 근대 소설에서 양복 청년, 즉 지식층 남성이 시대의 변화를 따라 어떠한 의미와 가치로서 형상화되는지 해명하려 한다. 근대 초기 프록코트 신사는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에서 볼 수 있듯 봉건적인 사회를 개혁하고 서구 제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개화 지식인의 상징이면서 '매국'의 기표로 받아들여지며 또한 물질적 서구화 가운데 정신의 변화가 따르지 못한 아노미 상태를 보여주는 존재이다. 프록코

* 한밭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트 신사의 상대편에 검약의 정신과 근면성, 금욕주의적 성향체계를 가진 학생복으로서 새로운 지식청년층이 부각된다. 이광수의 〈흙〉 등에서 비판과 동경의 대상인 '세비로 청년'은 1920년대 이후 근대 교육을 받은 지식청년의 규모가 커지면서 졸업과 동시에 학생복을 벗고 기성복이나 맞춤 양복을 유행하는 스타일에 따라 사 입으며 사회활동을 영위하는 젊은 계층을 일컫는 말이다. 1930년대 식민지 자본주의의 발달을 따라 소비문화의 감각을 향유하는 모던 보이의 면모는 이선희의 〈처의 설계〉 등에서 댄디의 멋을 보여주는 동시에 찰나적이고 기분적인 도취의 세계를 절대시하는 퇴폐적인 데카당스의 면모 역시 보여준다. 양복이 근대 자본주의 소비 사회의 상품 미감, 개성이나 교양의 감각과 결부된 것이라면, 1940년대 이후 장려되는 국민복은 개성, 미감의 영역과 무관한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며 이태준의 〈별은 창마다〉 등에서 외양에 있어 전체주의적 통제를 보여준다.

주제어: 양복 표상, 지식청년, 프록코트 신사, 세비로 청년, 모던보이, 색복 장려

1. 서론

본고는 개화기 이후 1940년대에 이르기까지 양복에 대한 지식층 및 대중의 인식과 양복 표상의 변화를 살펴보고 근대 소설에서 양복 청년, 즉 지식층 남성의 형상화가 시대의 변화를 따라 어떠한 의미와 가치를 나타내는지 해명하려 한다. '양복(洋服)'은 서구인의 복장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며 19세기에 만들어진 말로,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이 용어가 사용된 것은 1895년 외국복제를 공인하는 내용의 내부고시에서부터였다고

한다.[1] 오늘날 우리가 양복이라고 간주하는 슈트와 코트는 서구 사회에서 18세기 말에 시작되었다. 1881년 일본에 파견된 신사유람단 내 서광범 등 개화파 지식인은 우리나라 최초로 양복 입은 신사들이다.[2] 프록코트를 비롯한 양복이 우리나라 남성의 활동복으로 자리 잡아 가는 과정에는 '의제개혁'이라는 형태로 우리의 외양을 단기간에 변모시키고 서구화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이 관여한다.[3]

양복은 그 착용의 편의성과 위생성 때문에 식민지 시대 전반을 거쳐 별 어려움 없이 지식인 남성의 복식으로 자리잡아간다. 그러나 식민지 근대화 과정에서 양복 입은 청년 또는 신사를 둘러싼 표상은 근대화의 당위성과 식민지의 억압적 현실 가운데에서 긍정과 부정, 이상과 현실,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다양하게 분열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양복과 양복 청년의 표상 변화가 가진 의미를 시대별로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근대 소설 속 지식층 남성의 형상화가 가진 의미와 가치에 대해 재평가해 볼 것이다.

2. 프록코트 신사 : 외양의 근대와 서구화

사대부의 복식을 간소화함으로써 의복에 명시된 계급적 차이를 혁파하는 의제 개혁은 근대 사회에서 개인이 의복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개화파 지식인들을 중심

---

1) 김진식, 『양복 100년사』, 미리내, 1991, p. 46.

2) 최초로 양복을 입었다고 알려진 서광범은 언더우드 목사의 인도로 요코하마 53번지 '라다지'와 '로만스' 양복점을 구경하면서 서양 복식에 대한 호기심으로 양복을 사 입었다고 한다. 위의 책, p. 52.

3) 조희진, 「근대적 복식 유행의 출현과 사회적 수용 : 식민지 시기 언론 매체 기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p. 52 참고.

으로 갑신, 갑오, 을미년에 이루어진 세 번의 의제개혁은 단발과 양복 착용 등 우리의 외양을 혁신적으로 바꾸려는 기획이기에 면암 최익현과 같은 봉건 지식인들은 "중도 아니고 속(俗)도 아닌 놈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 옷소매가 좁아들 대로 좁아들어 몸나들기가 어렵고, / 머리를 깎으니, 몰골이 말이 아니게 되어 가는구나 / 조상의 넋이 있어 이를 안다면 / 구천에서도 통곡소리가 끊이지 않겠구나."[4]라고 탄식하기도 한다.

프록코트 신사란 사대와 수구로 대변되는 봉건적인 사회를 개혁하고 서구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개화파 지식인의 상징으로 자리한다. 개화파 지식인들이 한편 일진회를 중심으로 한 한일병합 추진세력이라는 점에서 프록코트 신사의 개혁적 상징성은 '매국'의 기표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또한 1910년대 상황에서 단발하고 양복입고 외국 유학에서 돌아온 새로운 지식층 남성을 지칭하는 프록코트 '신사'의 호명은 물질적 서구화 가운데 정신의 변화가 따르지 못한 아노미 상태를 보여주는 용어가 되기도 한다.

> 내 드르니 「신사」라는 말은 영어 Gentleman의 번역이라 하며 그 뜻은 識德에 兼備한 사람을 니름이니 社會의 中軸이 되어 그 社會를 善意의 進步로 引導하는 模範的人物을 尊稱하는 말이라하도다 朝鮮에서 慣用하던말로 飜譯하면 「君子」라고 함이 맛당할지나 因習上 君子라하면 山林에 가만히 숨어 堯舜의 世만꿈꾸는 儒僧인듯하야 맛이 적으되 紳士라 하면 조흔 洋服에 金眼鏡個나 부치고 馬車自動車 하다못해 人力車라도 타고 무슨 크고 緊急한 일이 늘 잇서 東西로 分駐하는 活潑潑한 사람이 想像되나니[5]

---

4) 최익현, 『면암집』, 여기서는 김진식, 앞의 책, p. 69에서 재인용.
5) 頭公, 「紳士硏究」, 『청춘』3, 1914. 12, p. 65.

1910년대 신지식층 남성의 외양을 집약하는 용어인 '신사'는 영어 gentleman의 번역어로 "낡은 좀내가 나는 군자"라는 말과 달리 "새로운 향내가 나는" 듯한, "현대에는 가장 서슬 푸르고 듣기 좋고 영광있는 칭호"이다. 양복에 중산모, 금테 안경, 한여름에도 벗지 않는 외투, 금반지와 지팡이 등은 신사의 공통된 복장이며 지표이다. 그러나 '식덕에 겸비한 사람'으로 '사회의 중축이 되어 그 사회를 선의의 진보로 인도하는 규범적 인물'이라는 뜻을 가진 젠틀맨과 달리 우리말로 번역된 신사는 학식과 도덕, 사회 진보에 대한 사명감이라는 내용이 거세된 채 서구화된 외양만으로 나타난다. 위 글의 필자는 "更張한지 발서 二十餘年에 새로 들어온 文明이 産出한 紳士란 엇던것인가 알고 시픈 맘이 간절하며 또 그 紳士되는 法을 배호아 나도 할만하거든 紳士가 되어 볼양으로 紳士 硏究를 始作"(65)한다고 너스레를 떨며 경성 거리를 오가는 신사를 관찰 분석하는데 그가 바라보는 신사는 '중산모, 안경, 인력거, 외투, 지팡이, 고갯짓, 금지환, 양복 등 별택'의 서구적인 외양의 조건으로만 발견되는 것이다.

> 이 때에 엇던 紳士 한분이 또 洋服에 外套를 떼어닙고 人力車를 타 고 오는데 앗가 紳士와 다른 點은 그가 지팽이를 겻헤 세우고 고개를 前後 左右로 홰홰 내어저음이더라. (중략) 또 한가지 異常한 것은 紳士라는 紳士는 다 洋服을 닙엇슴이니 녯날 漢學 선배들이 明服을 닙던 모양으로 꼭 洋服을 닙어야 新式 선배가 되나 보다 (중략) 洋服에 金眼鏡에 人力車가 아니고는 世上에서 待接도 못 밧고 남을 指導도 못하고 저려 말하면 紳士노릇을 할수 업다 하면 그도 그러럿다(68)

필자는 양복, 외투, 금테안경, 지팡이, 금반지의 외양으로 어디를 가나 얼른 '신사'임을 알 수 있는 그들의 조건 하나하나를 들여다보며 '왜?'라는 질문을 던진다. 이 더운 때 외투는 왜 입었을

까, 눈도 나쁘지 않은데 안경은 왜 끼었을까, 노인도 아니면서 지팡이는 무엇에 쓰는가, 여자도 아닌데 지환은 왜 끼었을까? 이러한 질문의 연쇄를 통해 그가 얻는 해답은 오직 하나 '그것이 신사의 자격'이며 '신사가 되기 위해서는 없지 못할 장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신사의 외적 표징을 집약하는 것이 양복이다. 옛 사람들이 명나라 옷을 입고 선배 노릇을 했듯 신식 선배 노릇을 하려면 양복이 필수라고 이야기하며 필자는 "洋服은 文明한 國民의 衣服이니 洋服만 닙으면 羊帽만 쓰면 머릿속 배속 까지 文明한 西洋式이 되렷다 衣服을 꼭 西洋式으로 하여야 한다 하면 禮儀와 居處와 言行을 말끔 西洋式으로 하여야하렷다 그러면 自然 父母와 握手도 하여야 하겟고 姉妹와 입도 맛초아야 하겟고 안해와 팔을 끼고 다니면서 電車나 탈 때에는 치마 자락도 쳐들어 주어야 하렷다 飮食을 먹되 칼과 三살창으로 하여야 하렷다 自然히 집도 羊室이야만 쓰렷다 에크 무섭어라"(68)고 조소한다. 조선옷의 열 배에 가까운 돈을 주고야 맞추는 양복을 입고 금지환을 끼고 어디를 가든지 인력거를 타야 신사 노릇을 할 수 있다고 할 때, 양복은 서구적이고 사치스러운 근대를 대변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귀결한다.

양복입고 프록코트 입은 서구적인 외양의 신사들은 토론회와 강연회, 음악회를 채우며 서구적 근대 문명에 대한 지향성(계몽)을 소리 높여 외친다.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에서 첫 번째 연설자로 나선 까마귀가 "후록고투를 입어셔 젼신이 색가마코 똥구란 눈이 말동말동ᄒᆞᆫ데 물ᄒᆞᆫ잔 조곰 마시고 연셜을 시작ᄒᆞᆫ다"[6]고 묘사되는 것처럼 식민지 봉건 대중을 대상으로 한 강연회와 토론회에서 프록코트 신사들은 양복이라는 새로운 외양을 전시하는 것으로 계몽의 메시지를 전달한다. 하지만 각종 강연회의 연사로 나선 그들조

6) 안국선, 『금수회의록』, 융희 2년, 황성서적업조합, p. 8.

차 양복 착용에 익숙한 것은 아니었다. “이돈화씨가 어느 해 녀름에 발달성씨와 가티 전주에 강연을 하러 갓섯는데 그때까지도 그는 조선복만 입고 양복은 한번도 입어 본 적이 업던 터에 강연 덕분에 처음으로 젓친 양복(오리에리 양복)을 지여 입엇섯다. (중략) 그 원수의 넥타이가 부스스 글너져서 말을 할 적마다 아희들의 당긔 모양으로 너펄너펄하얏다.”[7] 넥타이를 어떻게 매야 하는지, 허리띠를 어떻게 조여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계몽을 강연하기 위해서는 신사가 되어야 했고, 외양적으로 새로움의 가치를 체현한 존재가 되어야 했기에 양복을 입었던 것이다.

프록코트 신사가 외적으로 보여주는 서구 지향성은 새로움의 가치와 함께 사치스러움으로 대중을 매혹한다. 돈을 좇아 사랑을 버린 ‘심순애’와 그 때문에 학업을 작파하고 대금업에 종사하게 되는 ‘이수일’의 사랑 이야기를 그리는 조일재의 번안소설 〈장한몽〉에서 김중배는 “임바네스를몸에두르고수달피목도리를깁이귀바퀴까지둘럿으며” “옷은프록코트를입고조끼한가운데에는손가락같은금시곗줄을길게늘이”[8]고 등장한다. 정월 초하루 윷놀이에서 김중배를 만난 후 심순애는 다이아반지의 휘황함에서 매혹을, 이수일은 향수냄새가 풀풀 풍기는 외양에서 아니꼬움을 느낀다. “그런놈은사나이의눈으로보면아니꼬와서구역이나지마는여편네들은어떠한지아마여편네는그런사나이가ᄆᆞᆷ에들지”(5.17) 이수일은 자신과 장래를 약속한 심순애가 금강석반지의 휘황함과 몸에서 풍겨오는 향수냄새,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옷차림이 환기하는 세련됨, 즉 ‘훌륭한 신사 같’은 외양에 유혹을 느낄 것이라고 단정한다.[9]

---

7) 방청생, 「백인백태 연단일화」, 『별건곤』, 1930. 7, p. 38.

8) 조일재, 「장한몽」, 『매일신보』, 1913. 5. 14.

9) 심순애가 이수일을 버리고 김중배를 따라간 것은 휘황찬란한 금광석 반지에 눈이 멀었기 때문만은 아니다. 김중배가 구사하는 매혹의 전략, 유행하는 인버네스, 프록코트와 지져서 곱슬곱슬한 머리가 자아내는 세련됨, ‘모양도 훌륭한 신사 같’음에 사로잡힌 것이다. 김주리, 『모던걸, 여우 목도리

새로운 학식과 도덕을 바탕으로 사회를 지도 계몽할 선구자로 자처하며 연설회와 강연회, 토론회와 음악회에서 계몽의 고성을 높이던 프록코트 신사는 어느 새 양복과 금반지, 지팡이와 금테 안경의 서구적이고 사치스런 외양으로 속물화된다. 그러나 서구적 외양의 부박함을 보여주는 프록코트 신사의 모습만이 1910년대 지식층 청년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학지광』이나 『청춘』의 필자들이 기록하는 청년의 모습은 근대화의 사명감으로 무장한 금욕주의자로 나타난다. 가령 〈동경유학생 생활〉을 그리며 현상윤은 아침 일곱 시를 알리는 시계종 소리와 함께 일어나서 밤 열두 시를 알리는 사원의 종소리와 함께 잠이 들기까지 1910년대 유학생의 성실, 검소한 생활태도와 지식욕, 계몽열로 가득한 내면을 보여주고 있다. "上午여덟시 쯤하야 當日배울 冊子二三卷과 點心할「벤도」갑을 꾸려들고 制服制帽에 구쓰를 눌러신고 學校를 向하야 네거리로 찍나서"[10]고 수업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와 함께 노교수의 강의가 시작된다. "世界文明을 說法하는서슬에 가슴은 비록좁으나 늣겨 니러나는 생각은 막을수 업고 누를수 업다"(112) '제복 제모에 구쓰를 눌러신고' '벤또를 옆구리에 끼고' 학교로 향하는 유학생 청년들은 담백하고 검소한 '미소시루'와 '다꾸앙', 검은색 학생복 차림으로 생활하며 선각자의 사명감을 북돋우고 이타주의적 정신을 일깨운다. 검약과 근면성, 이른바 금욕주의적 성향체계가 프록코트 신사의 이면에 자리한 학생복의 세계, 개화기 이후 새로운 지식청년층의 표상이 되는 것이다.

를 버려라』, 살림, 2004, p. 21 참고.

10) 小星, 「東京 留學生 生活」, 『청춘』 2, 1914. 11, p. 111.

3. 세비로 청년 : 자본주의 소비문화와 사치

1919년 삼일 운동 이후 신지식층의 계몽열은 양복 착용의 확산을 가져온다. 부강한 나라를 위해서는 근대화=서구화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청년 학생이 늘고 양복 착용 인구 역시 확대된 것이다. 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 사회 활동에 뛰어들면서 양복은 새로운 남성상을 대변하게 된다. 졸업과 동시에 학생복을 벗고 본정(충무로) 일대 일본인 '오복점'에서 유행하는 스타일의 양복을 사 입으며 사회활동을 영위하는 젊은 계층을 일컬어 '세비로 청년'이라고 호명할 수 있을 것이다.[11] 세비로는 수입품이라 비쌀 수밖에 없다. 세비로 양복의 유행을 만들어낸 것이 조지야(丁子屋)였다는 것, 조지야, 미츠코시, 미나카이 등 식민지 조선에 진출한 일본인 오복점들이 1920년대 후반 거대 백화점으로 변모한다는 것은 곧 1920년대 이후 식민지 조선 사회가 소비 자본주의 사회로 급속하게 변모했음을 보여준다.[12] 양복 착용이 사회활동을 하는 신지식층 남성에게 보편화되는 가운데 세비로 양복은 양복 착용 자체가 아니라 어떤 의복지를 사용한 어떤 스타일의 양복을 언제 어떻게 착용하는지의 문제, 측 착용의 미학화를 집약해 보이는 대상으로 소비 자본주의의 상품세계를 펼쳐 보인다.[13] "남자는 모양을내면, 못쓰는줄알지만, 모양을 낸다기보다 남보기에 숭

11) 일본어 せびろ는 양복이라는 뜻으로, 런던의 Savile Row(거리명)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세비로의 由來」, 『동아일보』, 1935. 3. 13 참고.

12) 일제 강점기 백화점에 대해서는 하야시 히로시게, 김성호 역, 『미나카이 백화점』, 논형, 2007, pp.38-91 참고.

13) 세비로 청년들은 여름이면 해수욕을 위한 양복을, 봄가을에는 스프링을, 겨울에는 양모 코트와 같이 시절을 따라 다양한 양복을 소비하는 사치를 보여준다. 이는 일제 강점기 향락적인 소비문화의 미학을 보여주는 것으로 형상화된다. 이에 대해서는 김주리, 「식민지 시대 소설 속 해수욕장의 공간 표상」,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제58호, 2010, pp. 157-188 참고.

없지않게 하는 것은 자기의 품위를높이고 사람에게 호감을 주는 것"[14]으로서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세비로 양복을 지어 입는 청년들은 그와 함께 계절에 어울리는 의복지, 색깔, 스타일과 장신구에까지 관심을 기울이며 양복 착용의 미학을 펼쳐 보인다.

그러나 .양복을 입는 행위 자체가 사치스러운 것으로 각인되는 식민지 상황에서 세비로 청년의 미학이란 '못된 유행'이 될 수밖에 없다. "졸업하자마자 양복점으로 달려가 거금 백원대의『세비로』양복을 해 입는 속 못차리는 졸업생"[15]을 나무라는 글이 나타나는가 하면, 양복점은 교묘한 상술로 폭리를 취하는 기업으로 공개된다. "엉터리업는 것은 洋服장사"로 그들은 "척 들어서면 말쑥한 主人이나 店員이 척나서서 련해「先生님」惑은「상」을차즈며 아주 애교잇게 마저드"리고는 "이것저것 見本을 山 뎀이가티 내어노코 이게좃슴니다 저건그럿슴니다……고 이약이를 내어"[16] 현혹함으로써 원가보다 훨씬 비싼 양복을 맞추어 입게 만든다고 고발된다.

소비문화의 화려함과 사치를 대변하는 세비로 청년과 대조되는 자리에는 졸업을 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룸펜 지식층으로 대변되는 '학생복 청년'이 자리한다. 졸업 이후에도 낡고 때 묻은 학생복을 걸치고 다니며 직업을 찾거나 사회 비판을 모색하는 이들 청년군은 세비로 청년의 화려함과 사치, 욕망의 부박함을 공격하는 가운데 식민지 자본주의 현실의 허상을 비판한다. 이광수의 장편소설 〈재생〉은 사랑보다 돈을 좇아 타락해간 여성에게 복수하기 위해 미두업에 뛰어든 청년의 이야기를 그린다는 점에서 조일재의 〈장한몽〉과 유사한 서사를 보여준다. 삼일 운동의 실패 후 공적

14)「봄을실고오는 유행품들」,『여성』, 1937. 4, p. 51.
15)『조선일보』, 1929. 2 .9.
16)「지상공개-폭리대취체-엉터리업는 양복점」,『별건곤』, 1930. 10, pp. 100-101.

계몽의 열정이 사라지고 사적 안락과 욕망만을 좇게 된 청년층의 타락을 고발하는 이 소설에서 '인물 좋고 재주 좋고 치장 잘하는' 여학생 김순영을 사이에 둔 청년 신봉구와 부호 백윤희의 대결은 봉구의 땀에 전 학생복과 백윤희의 맵시 고운 한복으로 대변된다. "조선옷에 조선 버선을 신고 회색 대님을 치"[17]고 있는 백윤희가 으리으리한 집, 금강석 반지, 음탕한 육욕의 만족으로 순영을 유혹한다면 "때묻은 학생복을 입고 머리를 아무렇게나 갈라 넘긴 봉구"(92)는 몸과 마음 전부를 바치는 헌신으로 순영에게 육박한다. "동대문밖 고래당 같은 큰 집에 여송연을 피우던 백"의 화려한 외관과 "때묻은 학생복"을 걸친 봉구의 투박한 외양의 대결은 사적 욕망과 공적 계몽열 사이에서 갈등하고 분열하는 지점을 이루며 1920년대 자본주의 소비문화의 현혹을 경계한다.

이태준의 단편소설 〈고향〉은 대학을 졸업하고 귀국하는 두 청년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다. 주인공 윤건은 고학으로 졸업장을 얻었다는 자부심과 조선을 위해 힘껏 일하리라는 열정만을 가지고 학생복 차림으로 귀국한다. 반면 하관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그가 만난 또 다른 조선 청년 K는 이미 은행에 취직되었다는 데서 오는 여유로움을 풍기며 세비로 양복 차림으로 나타난다.

> 윤건은 차 속이 좁고 갑갑한 듯이 땀에 전 학생복 저고리는 벗어 걸어놓고 셔츠바람으로 몇 번이나 승강대에 나와서 날아가는 이국의 밤 경치를 내다보곤 하였다. (중략) 그 곤색 세비로를 새로 지어 입은 청년이 보이에게 조반을 시키고 윤건에게 물었다.[18]

때가 꼬질꼬질하고 땀에 전 학생복을 입은 청년과 곤색 세비로를 산뜻하게 지어 입은 청년의 차이는 그들의 내면을 환유하며 이

17) 이광수, 「재생」, 『이광수 전집』2, 삼중당, 1963, p. 39.
18) 이태준, 「고향」, 『달밤』, 이태준 문학전집 1, 깊은샘, 1995, pp. 124-125.

후 식민지 조선의 현실에서 그들이 걸어갈 운명을 예기한다. 윤건은 세비로 청년의 이기심과 속물근성을 비웃지만, 이미 xx은행 본점에 취직되었다는 청년은 "똥이라도 씻으라면 씻는 체라도 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제 체면이라도 꾸리고 살지"(126)라며 취직처도 정하지 못한 윤건의 이상을 비웃는다. 그의 비웃음처럼 윤건은 아무리 활동할 자리를 구하려야 구하지 못한다. 결국 윤건은 세비로 청년 K를 맥주병으로 구타하는 것으로 자본주의 소비 사회의 사적 욕망으로 일그러진 현실에 울분을 토한다. 조선을 위해 일하겠노라며 고생도 마다 않고 공적 계몽열에 불타는 유학생 윤건은 '땀에 전 학생복 그대로' 폭행 혐의로 입건되는 것으로 식민지 자본주의 조국의 현실과 조우하는 것이다.

세비로 청년의 이기적인 욕망과 대결하는 학생복 청년의 울분이나 폭력성은 공적 계몽에 입각한 그들의 도덕적 우월성이 전제된 행위로서, 식민지 시대 신문, 잡지, 소설계를 장악한 이들은 세비로 청년이나 신여성의 경박함을 공격하는 가운데 일종의 퍼포먼스로서 금욕적이고 도덕적인 지식인 남성상을 구현하고 있다. 가령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에서 구보는 교양도 없으면서 좋은 양복을 지어입고 금시계를 늘이고 여학생을 거느리고 월미도로 놀러가거나 카페에서 떠들썩하게 맥주를 마시는 두 명의 동창생을 만나며 그들의 속물적이고 경박한 태도에 경멸심을 품는다. "주머니에서 금시계를 꺼내보고, 다음에 구보의 얼굴을 쳐다보며, 저기 가서 차라도 안 먹으려나."라고 권하는 "전당포집의 둘째아들"[19] 중학 동창은 음료 칼피스의 저속한 미각을 즐기는 교양 없는 남성이다. "끽다점에서 사람들이 취하는 음료를 가져, 그들의 성격, 교양, 취미를 어느 정도까지 알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42)는 구보는 카페에서 보험회사 외교원인 중학 선배를

19)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깊은샘, 1991, p. 41.

만나자 그가 마시는 맥주와 무교양을 연결 짓는다. 소설조차 선전 대상으로 간주하는 외교원의 무교양을 비웃으면서 구보는 역으로 가난하지만 지적 교양으로 무장한 자신의 정신적 우월성을 상정하는 것이다.

> 양복점 쇼-윈도우-에 엷은 그림자를 그리고 지나가는 그들의 머리 속에는 『스마-트』한 자긔의 차림차림이 나타낫다 (중략) 양복에 배고밴 『나프타린』내음새가 코를 찌를 때, 그는 비애를 늑길 것이다. 더구나 그 양복이 제가 전당잡혓든 것이면…… 자긔의 전모(全貌)를 차저보고 환멸과 불안을 늑기면서도 길바닥에서 놉흔 삘딩에서 똥통을껄고가는 등등의 하층인간을 볼때 『그래도 나는 지식이 잇다』[20]

정신적 우월성을 주장하는 학생복 청년들에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양복의 빛깔, 스타일이 현대적이어야만 하는 세비로 청년의 모습은 현대 사조 속에서 고대의 귀족적 환락을 그리워하는 시대착오적 태도로 비판된다. 세비로 청년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스마-트'한 자아상이며 그 상이 깨어지는 것은 전당포에서 골라 입은 양복에서 풍기는 나프탈린 냄새를 맡음으로써 자신의 가난을 환기할 때이다. 가난한 자아에서 환멸과 불안을 느끼는 한편으로 똥통을 매고 가는 하층민을 볼 때면 그래도 자신은 지식층임을 자부한다. 고등 실직자로서의 현실과 양복의 스타일을 즐기는 신지식층으로서의 이상 사이에 모순을 일으키는 가운데 그들의 일상은 미적 환상의 허무함으로 가득한 것으로 표현된다.

때 묻고 땀에 전 양복을 걸쳐 입은 학생복 청년은 가난하지만 도덕적 우월성을 가정함으로써, 소비 자본주의의 유행에 민감하게 대응하는 세비로 청년에 대해 비판하는 동시에 상품 소비의 민감성을 보여주는 신여성에 대해서도 비판을 가한다. 〈개벽〉,

---

20) 안석영, 「古物商洋服-晩秋風景(1)」, 『조선일보』, 1933. 10. 20.

〈신여성〉, 〈별건곤〉 등에서 발견되는 학생복 청년의 "여학생은 일개 사치품" "여학생은 허영 덩어리" "부르주아 색기들의 향락"과 같은 발언들은 양복과 양장, 자본주의 상품을 소비하는 다른 청년층에 대해 자신들의 도덕적 우위를 연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생복 청년과 세비로 청년을 엄격히 구분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학생복에서 세비로 양복으로 갈아입는 행위는 근대 지식과 교양이 소비 자본주의가 제시하는 미학에 민감하게 대응함으로써 가능해진 것이기에, 근대 지식을 획득하고 근대적인 직업(사무직, 영업직,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남성이 양복의 미감을 향유하는 행위 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대 지식을 획득한 청년이 인력거꾼이나 행랑아범 같은 육체노동자의 외양을 할 수 없기에 그들은 어쨌든 세비로 청년과 동일한 감각과 교양을 외양에 구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강경애의 〈인간문제〉에서 계급 운동에 뛰어든 지식인 신철은 노동자인 첫째, 간난, 선비 등과 달리 상품의 매혹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전향한다.

> 미쓰고시를 향하여 들어가고 나오는 사람은 모두가 말쑥한 신사고 숙녀였다. 자신과 같이 이렇게 초라한 양복에 겨울 중절모를 아직까지 쓴 사람은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모두가 햇빛에 반짝반짝 빛나는 여름 모자를 쓰고 여름양복을 시원스레 입었다.[21]

더위와 배고픔을 피해 거리로 나온 신철은 미쓰코시 백화점에 들어서면서 말쑥하게 여름양복을 차려입고 아이스크림을 즐기는 청년들 앞에서 자신의 초라함을 신경질적으로 받아들인다. 계급 운동에 투신하기 위해 가출해 지령을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초라한 양복에 겨울 중절모를 쓴 자신을 부끄럽게만 생

21) 강경애, 「인간문제」, 이상경 편, 『강경애 전집』, 소명출판, 1999, p. 319.

각한다. 외양의 초라함에 대한 부끄러움은 신념 상실로 이어지며 그는 주의나 가치관조차 자본의 힘, 자본이 환기하는 행복, 상품 세계의 일상 앞에서 지극히 무력함을 보여준다. 이후 신철의 변절은 예기된 것이다. 피검된 신철은 자연스럽게 사상전환을 하고 불기소 처분을 받아 나와서는 "만주국에 취직하고 더욱 돈 많은 계집을 얻고"(410-411) 안정적인 중산층의 삶에 편승한다. 지식인 신철에게 있어서 계급주의 사상(학생복의 세계)이란 그의 교양이 빚어내는 감각적 예민함(세비로의 세계)과 다르지 않았던 것이다.

학생복과 세비로, 근대 지식인 남성의 금욕과 소비 사이의 대결은 지속되지 않는다. 학생복이든 세비로든 양복을 입은 지식인 남성은 식민지 조선의 현실과 조우하며 어떤 식으로든 현실을 변화시킨다. 이광수의 〈흙〉에서 '살여울'은 두 명의 양복 입은 남성에 의해 개발되는 동시에 파괴된다. 허숭과 유정근이라는 양복 입은 남성들은 살여울에 스캔들과 사치소비를 가져 오며 이 때문에 살여울은 더 가난해지고 더 타락해간다. "허름한 학생복 대신에 흰 바지 흰 조끼에 말쑥한 양복을 입은"[22] 허숭과 "회색 소프트 모자를 영국식으로 앞을 숙여 쓰고 팔에는 푸른빛 나는 스프링을 들고 물소 뿔로 손잡이를 한 단장을 들고 대모테 안경을" 쓰고 "아주 씨크하게 양복으로 차린"(312) 유정근 사이에는 그리 큰 차이가 없다. 협동조합과 식산조합으로 대비되는 그들의 행위는 각각 계몽-성장과 향락-타락의 차별화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부업으로 돈을 번 유정근이 그 돈을 허숭의 계몽사업을 잇기 위해 기부한다는 결말은 학생복 청년과 세비로 청년의 지식이나 도덕성에 그다지 차이가 없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

22) 이광수, 「흙」, 『이광수 전집』 6, 삼중당, 1963, p. 92.

이기영의 〈외교원과 전도부인〉은 생명보험회사 외교원으로 다니는 남성과 독실한 전도부인의 논쟁을 통해 생명보험(자본주의)과 기독교 신앙(서구문화)의 유사성과 허구성을 풍자하는 소설이다. 그 속에서 생명보험회사 외교원과 같은 세일즈맨의 비애, 즉 돈은 제대로 벌지 못하면서 말쑥하게 양복을 차려입지 않을 수 없는 허위의 삶이 드러난다. "감독은 자기더러 양복이 그래서 어디 외교를 하겠느냐고 새로 한 벌 갖추라 하였다. 그리고 금테안경을 도금한 거라도 사서 쓰는 게 좋겠다고 권고하는 것이었다. 그때 그는 구루마를 끌고 가는 노동자를 가리키며 우리의 하는 일이 저런 이보다는 좀 편하냐고 빙그레 웃었다."[23] 구루마꾼이나 인력거꾼 같은 육체노동을 할 수 없는 근대 지식인 청년의 입장에서 보면 학생복과 세비로 사이의 차이를 논하기는 어렵다. 육체노동을 할 수 없는 이상 먹고 살려면 지식이나 교양을 살린 서비스직에 종사하지 않을 수 없고 하다못해 외교원 노릇이라도 하려면 분에는 넘치나마 여름 양복을 사 입고 맵시를 내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식민지 근대 사회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굶더라도 양복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나아가 근대 도시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양복이 있어야만 예의도 지킬 수 있고 발언권도 가질 수 있으며 계절까지 감각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확대되며 식민지 자본주의 상황 속 '레디메이드 인생'으로서 지식 청년의 무기력을 나타낸다. 채만식의 소설 〈레디메이드 인생〉은 식민지 지식인 남성을 쓸모를 상실한 '기성품' 양복과 같이 간주하며 굶주리면서도 노동에 나서지 못한 채 무력함에 길들여진 존재로 묘사한다. "엊그제 겨울 외투를 사 원에 잡혀서 생긴" 돈을 규모 없이 쓰면서 "공상을 하면서부터 취직을 시들하게 여"기고는 사오십 원 월급

23) 이기영, 「외교원과 전도부인」, 『가난한 사람들』, 푸른사상, 2002, pp. 127-128.

쟁이 노릇을 구차하다고 생각하고 "좀더 남의 눈에 띄며 좀더 재미있고 그리고 자유로운 생활"[24]을 꿈꾸는 존재로서 지식 청년의 무위를 단정함으로써 이 소설은 기성품 양복과 같이 낡아짐으로써 사회에서 쓸모를 찾지 못하는 지식 청년의 현실을 생생하게 노출한다.

채만식의 수필 〈봄과 외투와〉와 〈전당표에 온 봄〉 등에서는 전당포에 외투를 맡기거나 봄 양복을 찾는 행위를 통해서만 계절을 느낀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남들이 모두 스프링과 세루 바지를 차려 입고 엷은 회색 모자에 카키빛 레인코트를 걸치고 한 속에서 자신만 동복을 입은 초라함을 느끼면서 그는 외투를 전당포에 맡김으로써 "거북한 동산"을 처분하고 전당포에 맡긴 양복을 찾아옴으로써 봄의 경쾌함을 느낀다. "회계 보는 이에게 사정사정해서 겨우 '4개월분 이자입'이라는 도장을 받아왔지요. 이렇게 해서 내게도 봄이 왔소-전당표지에 봄이 왔소."[25] 가난한 지식인 남성에게 계절에 따른 양복차림이란 분에 넘치는 사치이며 그는 전당을 잡히고 전당을 찾는 것으로 순환하는 계절을 느낄 뿐이다. 이처럼 계절 따라 양복을 바꿔 입는 행위가 지식청년층에 보편화되면서 그들의 허영에 대한 공박이 여성 지식인들에 의해서 활발하게 진행된다. 직업도 없으면서 양복을 떨쳐입고 거리를 오가는 지식청년들을 향해 신여성들은 "朝鮮男子처럼 分에넘치게 (卽經濟狀態에 맛지안케)까지 철을차저 닙으려고 애쓰는이는적을 것이다."라고 공격하며 "新調의洋服, 옷포켓에 느러트린 무새손수건한쪽으로 기우러질듯하게 가만히 언즌最新型 겨울帽子 청천바탕에붉은점박힌넥타이 이만하면되엿다는듯키 大路로 橫行闊步하는꼴이야 嘔逆이나 서못볼지경이"[26]라고 경멸감을 드러낸다.

---

24) 채만식, 「레디메이드 인생」, 『채만식 전집』7, 창비, 1989, pp. 55-56.
25) 채만식, 「전당표에 온 봄」, 전집 10, 창비, 1989, pp. 284-285.
26) 최의순, 「嘔逆질나는男性 - 가을거리의 남녀풍경」, 『별건곤』, 1930. 11, p. 90.

남성들의 계절 따른 양복 갈아입기에 대해 이렇듯 공격적인 논조를 보이는 것은 지식인 남성들의 신여성을 향한 사치와 허영 공격에 대항하기 위해서이다. 가령 〈여자가 허영이냐, 남자가 허영이냐〉와 같은 남녀공방전에서는 항상 남성이 먼저 여성에게 의복에서 허영이 심하다고 공격하고 여성편에서 남성에게 반격을 펼치게 된다. "남자는 그러케도결백하고 청금한체하며 허영심업다고하면서 웬일로 하이카라를막하고얄밉게도 얼골에분을바른다 크림을바른다 수건에 향수를뿌린다. 씰크양말을신는다"[27]는 것, 사회생활에 실용적이라는 논리로 치마감 몇 배에 해당하는 돈을 양복에 지불하면서도 오히려 신여성의 허영과 사치를 공박하는 남성들에 대해 여성들은 경멸하며 구역질을 느낀다. 여성 지식인의 구역질은 양복의 사치가 아니라 양복을 떨쳐입고 도덕성을 연행하는 지식청년군의 퍼포먼스에 가로놓인다. 따라서 여성들의 반격은 세비로 청년의 부도덕성, 경박함에 대한 지적을 동반한다. 신여성들은 지식청년을 '히야까시 인종'이라고 단정하며 "대개는 혼자서 그러치 아니하면 둘이서 눈ㅅ방울을내둘으며 어실렁어실렁 왓다갓다하는 소위 양복신사(?)"들의 부도덕과 천박함을 공격하고 있다. "무슨심ㅅ보로 공연히 지나가는녀자를 욕하고 히야까시를하나? 그것이 무슨맛일가?" 양복을 입고 학생복을 입었달 뿐이지 "그야비하고 천한품이 짐생이상"[28]인 남학생들, 신사들에 대해 신여성들은 그들의 심보를 알 수 없다고 말함으로써 지식층 남성들이 신여성을 향해 허영스럽고 사치스럽다고 공격함으로써 자신들의 도덕성을 연행하는 행위의 이면을 들추는 것이다.

이선희의 단편소설 〈가등〉은 도시거리를 배회하는 여성 산책자의 시선을 통해 세비로 청년의 도덕성 연행, 우월성 퍼포먼스에

---

27) 「여자가 허영이냐? 남자가 허영이냐?」, 『신여성』, 1926. 7, p. 50.
28) 「본지여기자의 불량신사검거록」, 『별건곤』, 1931. 5, p. 30.

대해 역응시를 시도하고 있다. 〈가등〉은 신여성 명희가 자신에게 구애하는 룸펜 지식인 남성과의 만남을 회피하려고 경성 거리를 산책하다 우연히 그와 만나게 되고, 식민지 근대 사회의 현실 앞에 절망하는 남성의 포즈를 가볍게 조롱한다는 이야기이다. 소설 속에서 지식인 남성은 본정을 산책했다는 명희의 말에 여성들이 본정 산책을 하는 것을 천박한 추종행위로 간주하며 비꼼으로써 여성 앞에서 자신의 도덕적 우월성을 연출한다. 명희는 이러한 남성 지식인의 도덕적인 퍼포먼스에 반발하며 대학을 졸업하고도 마땅히 아무런 일도 갖지 않은 채 도시 거리를 헤매는 한갓 룸펜에 불과한 남성의 현실을 환기시킴으로써 저항한다. "「선생님 어서 댁으로나려가세요. 여긔서 작구 「카페」에나 가시려고 그리시지뭡니까」명희는 생글 생글 우스면서 몹시 괴로워하는 그에게 또 이런 말을햇다."[29] 지식인 남성에게 할 일 없이 도시 거리를 배회하지 말고 고향으로 떠나라고 종용하며 명희는 여성의 거리 배회를 부박하다고 공격하는 남성의 배회야말로 방향과 의지를 상실한 부박함, 부도덕을 상정하는 것임을 지적한다.

4. 나팔바지 모던 보이 : 댄디의 멋, 데카당스의 퇴폐

1930년대는 '모던'의 유행 시대로 집약할 수 있다. 모던 보이, 모던 걸, 모던 결혼, 모던어, 모던예술, 모던 기생 등 거의 모든 사물에 모던을 붙이는 현상은 과연 '모던'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사색을 낳고 모던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비판을 낳는다.

> 요새는 좀 덜하지마는 한때는 서양ㅅ것이라하면 덥허노코 조타하야 의복, 음식, 심지어 삐트까지라도 노치못해하든 분들이 잇섯다. (중략)

29) 이선희, 「가등」, 『한국근대단편소설대계』23, 태학사, 1988, p. 7.

「모던껄」이나「모던뽀이」모양으로 덥허노코 화사에 들뜨고, 빠이오탱, 피아노나 치고안저서 련애자유나 불으고 걸핏하면 정사-그러치안으면 실련병에 술이나 마시고다니는 것은 세기말적의 퇴폐기분을 단ㅅ적으로 나타내는것이라.[30]

위 글에서 필자는 양풍이라는 이유로 덮어놓고 좋아하며 추종한 끝에 의복, 음식은 물론이고 아예 자신의 육체까지 서양을 모방하려 하는 풍속으로부터 격에 어울리지 않는 몸치장과 행동, 퇴폐기분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모던보이, 모던걸이 나타나게 되었다고 본다. 모던보이 모던걸은 현실을 몰각한 채 바이올린, 피아노나 치고 앉아서 연애자유를 부르짖고 정사와 실연병의 퇴폐를 나타내는데, 이는 그들이 세기말적 퇴폐기분을 단적으로 상징하는 존재임을 보여준다. 즉 그들의 육체는 스러져가는 세기말 세상의 잔해라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위 글의 필자는 모던걸, 모던보이를 경박성이 아니라 퇴폐성 측면에서 비판한다.

30년대 남성상을 집약하는 '모던보이'는 퇴폐와 경박, 사치와 허 영이라는 여러 가지 기호의 중첩 속에 논의된다. 그들은 외국 활동사진의 영향을 받아 '『하롤드,로이드』의대모테안경'과 '『빠렌티노』의귀밋머리긴 살적' '『뻐스터키-톤』의젬병모자(帽子)'와 "『카-보이』의가죽바지가 됴선청년에게나팔바지를 입혀주"[31]는 가운데 경성의 거리를 활보하는 이질적인 모습으로 받아들여진다.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만 있는 조선의 거리'를 활보하는 그들의 모습은 이국적이며 사치스럽다. 그들에게 식민지 조선의 현실과 자신들의 가난한 육체는 지각되지 않는다. 도시거리를 방랑하며 영화를 보고 상품의 카탈로그를 보며 백화점을 산책하고 위스키를 마시고 영화배우의 브로마이드를 사며 그들은 자신들의 외양을 구성하는

30) 최서해, 「모-던껄 모-던뽀이 대논평」, 『별건곤』, 1927. 12, p. 120.
31) 안生, 「모-던뽀이의散步-街上所見」, 『조선일보』, 1928. 2. 7.

물품들 하나하나에 예민한 감수성을 발휘한다. 그래서 "인테리, 더구나 月給쟁이에게는 이 『넥타이』가 그 너즐한 月給洋服의 갑슬 올리는 『렛델』이라는 것보담도 그 自身의 品格, 趣味意情까지도 말하는 것"[32], 즉 한 사람의 품격이나 취미와 개성을 보여주며 그의 가치를 측정하는 요소가 된다. 이런 감각적인 예민함으로부터 김기림은 "도회는 매춘부"라는 극단적인 고백을 내뱉는다. "「쇼윈도우」의 화사한 인형과 舶來品과 모자와 「넥타이」에 모여서고 있는 불건전한 夢遊病者의 무리들"을 "심장과 뇌수를 「보너스」와 월급에 팔아버린 機械人間", "「부르조아」가 빚어놓은 享樂의 회색지를 反芻하는 飢渴한 「로맨티시스트」-"[33]라고 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소비문화가 빚어내는 변화무쌍한 상품의 감각을 예민하게 포착 향유하는 모던 보이의 면모는 댄디의 멋을 보여준다. 나팔바지와 대모테 안경, 금시계와 캡, 스틱과 같은 외양의 세부를 구성하는 상품들 하나하나가 독립적 미학을 나타내며 소비 향유된다. 가령 이서구의 수필 〈스틱〉에서 스틱은 청춘의 흥취를 돋우는 산책의 필수품으로 말쑥한 여름 양복과 산보의 쾌감을 대변하는, 살아 있다는 생명의 기쁨을 풀어내는 표현물이 된다.[34] 스틱은 양복이나 캡, 나팔바지나 넥타이처럼 한 사람의 개성과 계급을 표현하는 매체, 외양의 표본이다.

> 나는 이봄에 새로이 좋은 洋服을 한 벌마추어입겠습니다. 푸른빛으로 할가 회색으로할가 그렇지 않으면 자주빛으로할가?
>
> 스푸링, 코트는 괜찮은 것이 집에있으니까, 그것은 고만두고 대신 晴雨兼用의 우레인, 코트를 썩값나가는 놈으로 하나사입겠습니다(이것

32) 안석영, 「푸른 旗幅, 五十錢짜리 넥타이-五月의 스켓취(2)」, 『조선일보』, 1934. 5. 13.

33) 김기림, 「도시풍경 1」, 『김기림 전집』5, 심설당, 1988, p. 389.

34) 이서구, 「스틱」, 『별건곤』 14, 1928. 7.

도 무슨 색깔로정할가?)

帽子와 넥타이와 洋靴도 모다 한十餘圓식주고 아주 豪華로운 것으로 使用하겠습니다. (그러면 모양이 퍽 그럴듯하리라.)

理髮과 面刀도 자조하야 爽快한 氣分을돕게하고 煙草도 될 수만 있으면『스리-카슬』이나『웨스트-민스타 같은 舶來品을 피우며손에는 高級스틱을들어보겠습니다. (중략) 이렇게 차리고 일도늦도 않은 快晴한 아츰에 턱하니 거리엘나스면 따뜻하고 꽃피고 微風의 봄날이 全혀나하나만을 위하야 된 世界인양 그 얼마나 아름다웁고 滿足한것이겠습니까?[35]

안회남은 수필 〈의복미〉에서 새로 양복을 맞추어 입고 그에 어울리는 코트, 모자, 넥타이, 신발까지 모두 고급으로 맞추어 호화로운 모습을 꾸미고는 이발도 새로, 면도도 새로 하고서 담배도 고급 외제품을 피우고 고급 스틱을 들고서 도시 거리를 산책하겠노라는 욕망을 이야기한다. 새로 양복을 맞추고 그에 걸맞는 여러 장신구와 정결한 외관을 갖춘 가운데 그는 거리를 거닐고 다방에 가서 커피를 마시고 오전에 창경원, 오후에 한강에 나가서 봄을 즐기는 일을 설계한다. "어제 영화를봇았으면 오늘은 도서관으로 어제책을읽었으면 오늘은 상설관으로 이렇게 자리를옴겨하로를지"124)내면서 밤이 되면 술집을 찾아 술을 마시고 마음에 맞는 친구를 거리에서 만나 카페와 바를 옮겨 다닌다. "비루와압산과 위스키가 瀑布처럼 나의 胃臟속에 쏘다지고-"(127) 그는 낮에 산 영화배우의 브로마이드와 고급 단장을 챙겨서 귀가한다. 개별적인 상품의 미학을 예민하게 포착하고 즐기는 댄디와 세기말적 우울을 표현하며 퇴폐를 연출하는 데카당스는 이러한 삶 속에서 융합된다. 외양에 대한 극도의 세련됨과 극도의 무관심이 함께 특정한 식민지 남성 지식인을 형성하는 것이다.

박팔양은 〈모-던뽀이촌감〉에서 "엇지해서 淸新한感覺의世界를

35) 안회남, 「의복미」, 『조광』, 1934. 3, p. 125.

異端者의世界로 보느냐 近代生活을하는사람에게서 感覺의慰安을빼앗는다면 그는 너머나 苛酷한刑罰이아닌가"[36]라고 반문하며 현재가 빠른 속도감과 변화를 요구한다고 할 때 찰나적이며 도취적인 감각의 세계에 충실한 태도가 어째서 나쁘다는 것인가, 도시의 근대를 살아가는 청년에게서 청신한 감각의 향유를 뺀다면 과연 무엇이 즐거움으로 남을 수 있는가를 묻는다. 모던보이의 감각적 세련미야말로 도회 근대 생활의 기본이 되는 자세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처럼 찰나적이고 기분적인 도취의 세계, 청신한 감각의 세계를 절대시하는 모던보이의 관점에서는 식민지 자본주의 조선의 현실이란 벌 줄은 몰라도 쓸 줄은 아는 모조 가정의 세계를 절망적으로 지속하는 상황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관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선희의 중편소설 〈처의 설계〉이다. 상품 소비에 민감한 모던 보이 청재와 모던 걸 소라가 구성한 가정은 소비만을 지향하며 현실적 근거나 생활이 거세된 상태로 나타난다.

> 청재는 사실 어느 공과 대학 건축과를 수석으로 졸업한 참 보기 드문 수재요 지금 세상에 손만 들어도 돈이 생길 조흔 조건을 가지고 잇건만 돈을 벌지 못한다.(중략)청재나 소라는 그 옛사람처럼 먹지 안코 모흐기 위해서 돈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진실로 먹되 밥만 먹지 말고 양식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되도록 잘 먹고 잘 향락하기 위해서 돈이 그러케 필요한 것이다.[37]

청재와 소라의 가정은 오로지 문화 소비, 사치스러운 삶에 대한 욕구로 채워져 있다. 그들은 밥이 아니라 포도주도 먹고 양식도 먹고 향락하기 위해 돈을 필요로 하지만 돈을 벌 재주는 없다. 공

---

36) 박팔양, 「모-던뽀이 寸感-모던 껄 · 모던뽀이大論評」, 『별건곤』 10, 1927. 2, p. 116.

37) 이선희, 「처의 설계」, 『월북작가대표문학』 5, 한국도서출판중앙회, 1989, pp. 57-59.

대 건축과를 수석졸업하고도 (다분히 파시즘적 시대 상황에 대한 절망에서 비롯된 듯한) 병적인 게으름 때문에 청재는 돈을 벌지 못한다. 그래서 그들은 오년 동안 친척들에게 돈을 구걸해서는 그 돈을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서, 영화를 보거나 커피를 마시거나 당구를 치거나 양복을 사는 것으로 탕진한다. 그들에게 배고픔이란 밥을 못 먹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문화생활, 영화나 음악을 즐기지 못하고 상품을 즐기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다. 이는 그들의 방을 장식한 세간이 자화상, 초상화, 큰 삼면경, 자개장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데서 단적으로 집약된다. 그들은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치를 살며 상품의 세계를 꾸려갈 뿐이다. 그들의 소비지향적이고 퇴폐적, 비생산적 생활은 결말에 이르러서도 청산되지 않으며, 그들은 여전히 밥값이 아니라 양복값에 졸린다. 이러한 퇴폐성, 세기말적 데카당스의 의식은 한편으로 식민지 자본주의 사회의 비생산적 면모를 건드린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박태원의 〈적멸〉이나 이상의 〈날개〉 등에서는 정신병자에 가까운 광기를 노정하거나 무기력하게 유폐된 삶을 연출하는 데카당스를 묘사함으로써 식민지 자본주의 사회의 허위를 역설적으로 드러내 보이고 있다. 〈적멸〉에서 소설쓰기에 초조해하던 '나'는 창작욕이 일지 않자 도시거리로 뛰쳐나오고 첫 번째 들어간 찻집에서 "조그만한 '붉은실감기'를 손에 들고 그놈을 한 자 길이 가량을 풀었다가는 다시 감고 감았다가는 다시 풀고…… 이 단조롭고 무미한 어린이 장난 같은 것을 이 쌀쌀한데도 철겨운 레인코트를 입고 그 큰키와 긴 얼굴에는 조금도 어울리지 않는 캡을 쓴"[38] 괴상한 사나이를 알게 된다. 그는 "인생이라는 것에 의혹을 품"(199)고 자기존재의 목적에 대한 고민의 답을 찾지 못하자 모든 것에 흥미를 잃어버리고 인생에 한없는 권태를 얻으며 "생존

38) 박태원, 「적멸」,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깊은샘, 1991, p. 198.

욕을 완전히 결한 존재"로서 "'나'라는 존재를 완전히 유희화 시킨다는" "물론 변태적의 것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206)에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다. 그는 각종 예식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때때로 철없는 장난을 하여 '천진'한 '근대청년'들의 '모멸'이라든 ' 조소'를 받는 데서 이름 모를 기쁨을 맛"(211)본다. 일부러 나이프와 포크질을 예의에 어긋나게 함으로써 모던보이들의 조소를 사거나 비를 피하는 사람들을 비웃으며 일부러 내리는 비를 흠뻑 맞는 것으로 그는 근대 도시문명의 온갖 정상적 예의와 생활방식을 비판하며 자신의 본능을 해방시키려한다. 이는 결국 자본주의 근대 문명을 그대로 따를 수도 비판할 수도 없는 식민지 지식인의 파산상태를 보여준다.

이상의 〈날개〉에서는 단벌의 양복으로 방에 유폐된 채 살아가는 데카당스 청년을 그린다. 의도적으로 사회로부터 유폐 격리된 근대 지식인, 박제된 천재를 연출하는 주인공은 매춘부 아내의 화려한 옷과 대비되는 단벌옷의 상태를 통해 화폐 교환으로 이루어지는 자본주의 상품세계의 논리를 거부하는 자세를 보여준다. "허리와 두 가랑이 세 군데 다- 고무 밴드가 끼여 있는 부드러운 사루마다를 입고 그리고 아무 소리 없이 잘" 놀고 있는 "나에게는 인간사회가 스스로왔다. 생활이 스스로왔다. 모두가 서먹서먹할 뿐이었다."[39] 지식인의 퇴폐적인 생활을 안락한 유아의 상황과 같이 형상화함으로써 〈날개〉는 자본주의 사회의 일상에서 벗어나 소모하고 감산하는 삶, 데카당스의 퇴폐가 가진 저항력을 보여준다.

채만식의 〈少妄〉에서는 이러한 퇴폐적 데카당스로서의 면모가 특히 파시즘에 직면한 상황에서 지식인의 저항행위로서 성립됨을 보여준다. 시대 상황으로 인해 다니던 신문사를 그만둔 지식

39) 이상, 「날개」, 『이상문학전집』 2, 문학사상사, 1990, pp. 323-324.

인 남성이 아내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괴팍스런 행동을 하는 것으로 일탈을 표현하는 〈소망〉에서 아내는 신경쇠약에 걸린 듯한 남편의 상태를 의논하기 위해 건실한 자본주의 가정인 언니네를 찾는다. "그이가 쇠통 글쎄 겨울 양복을 끄내 입었어요. 이 삼복중에 겨울 양복을. 저를 어쩌니, 가 아니라, 머 정신이 아찔하더라니깐. 그게 제정신 지닌 사람이 할 짓이우? 하얀 아사양복을 싹 빨아 대려서 양복장에다가 걸어준 걸 두어두구는, 이 삼복염천에 생판 겨울 양복이 어디 당한 거유."[40] 아내는 여름에 겨울옷을 입는 남편의 행위에 대해 망령이라고 호들갑을 떨지만 남편은 그런 아내를 향해 "천민! 속물! 세상이 곤두서는 데는 태평이면서, 옷 좀 거꾸루 입은 건 저대지 야단이야."(339)라고 공박한다. 급박한 시대상황에서 지식인의 소극적 저항은 망령이 든 행위, 정신병자의 행위처럼 보인다. 그는 여름에는 여름 양복을 입어야 한다는 상식에 저항하는 비이성 또는 반이성적 행위를 통해 자본주의의 합리성이 가져온 파시즘이라는 모순된 상황에 저항하는 것이다.

5. 색복(色服)의 제국 : 외양의 근대와 식민화

김남천은 〈풍속시평〉에서 "각양각색하고 나날이 변하여 가는 그 가운데서 이 시대의 특수한 형상을 관찰"함으로써 "한 나라, 한 사회, 한 계층의 정치나 의식주, 그리고 이것과 부수되는 '혼인' '예술' '예의' '직업' '신앙' '사상' 그리고는 이것을 전파하는 '교통'이나 다시 뻗어서는 '풍토'와 '산업'까지를 고려"해 풍속 시평이 이루어져야 함을 이야기한다. "풍속시평이 사회 시평의 성격

40) 채만식, 「소망」, 전집 7, 창비, 1989, p. 338.

을 갖추게 되는 것도 이 때문이고, 풍속사의 과제가 사회경제사나 예술의 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짐이 모두 이 탓이"[41]므로 의복, 구두, 두발 등의 변화에 대한 관찰과 비판 작업이란 그에게 있어 파시즘 상황의 역사적 전망을 모색하는 행위와 긴밀하게 결합된 것이었다. 그는 시정의 색채 다양함, 교양 취미와 환경에 따른 옷차림의 다양함을 요구하며 이런 다양함을 추구할 수 있는 시대야말로 독재가 아닌 시기, 즉 자유를 호흡하는 시기라고 본다.

의상에 있어 그가 초점을 두는 것은 "자기자신의 심미적인 만족감과 또 하나는 자기 자신의 풍속상 안전감"(141)이지만 "그러나 물론, 의상 그 자체가 가령 제복이나 유니폼 모양으로 일종의 정치적 내지는 신분적, 직업적 의의를 띠게 된다든가, 노동 양식에 의하여 결정적으로 원인된 것 같은 것을 고찰하는 경우에는 이상과 같은 두 개의 조건만으론 정확한 관찰을 수행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전자의 예로서 우리는 밀리터리 시스템에 의한 각종의 제복을 들 수 있고 후자의 예로는 사내의 양복이 일상적으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의 양장이 그다지 보급화되지 않은 것을 들 수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 최근의 국민복은 어떤 의미에서나 의상 풍속사상 특필대서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심미적인 만족감이나 그런 것은 물론 고려할 여지조차 없어진다. 그것은 여하튼 유니폼이란 일종의 하이아르키에도 불구하고 타방에는 평등주의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도 간과할 수는 없다.(중략)남자에게 있어서 양복은 소비적 복장이기보다는 오히려 사무적 복장이다. (142-142)

그는 제복의 유행을 심미적인 만족감을 전혀 고려할 수 없는,

---

41) 김남천, 「풍속시평」, 정호웅 손정수 편, 『김남천 전집』 2, 도서출판 박이정, 2000, p. 139.

평등주의의 내포라는 측면에서 정치적 의의를 띤 것으로 설명하고, 양복의 유행을 노동양식에 의한 실용성 측면에서 설명한다. 양복이 보편화된 것은 소비적 미학 때문이 아니라 생산적 편리 때문이기에 남성의 경우 한복이야말로 소비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반면 여성의 양장은 소비적이기에 문제가 된다. 그러나 40년대 들어 남성의 양복 착장은 양복지 구입의 어려움과 전시 경제의 긴축, 절약 움직임과 결부되어 국민복의 착장으로 바뀌게 된다. 모던 보이의 댄디적 미학이나 데카당스적 퇴폐는 국민복이 함의하는 '명랑하라, 건실하라'라는 구호를 따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민복은 개성이나 미감과는 무관한 영역에서, 정치적인 필요성에서 출발한 복식이기 때문이다. 양복과 국민복은 노동의 편리라는 실용성을 공유하지만 양복이 근대 자본주의 소비 사회의 상품 미감, 개성이나 교양의 감각과 결부된 것인 반면 국민복은 개성, 미감의 영역과 무관한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파시즘적 현실에서 어느 정도 강제성을 가지고 진행된 '국민피복접근 운동'(국민복 착용 운동)은 "전시하 국민의 복장 간이화가 절대 필요한 것일뿐아니라 전시임에도불구하고 복장이 각양각색으로 화려한 것만 느러서 남자의 '세비로'양복만도 매년 약 삼백만벌을 신조하는 현상이므로 이대로 내버려두는 것은 어떤 점으로 보든지 자미스럽지 못한 형편이라 하여"[42] 생겨난다. 미나미 지로 총독은 중국인 왕보장이 경영하는 복장양복점에서 "「스텐칼라ㅡ」에다가 멧 키로된 금단포 그리고는 허리에 줄근동여맨 뺀드의 모양도 그럴 듯하여 흡사히 방호단분단장이라는 인상을 보는사람으로 하여금 갓게하"[43]는 국민복을 지어 입었는데 이는 전시하 긴축 경

42) 『조선일보』, 1939. 11. 25.
43) 『조선일보』, 1938. 8. 5.

제의 수행 및 조선인에 대한 통제와 총후로의 동원이라는 정치적인 고려에서 이루어진다. 40년대를 대변하는 국민복은 피식민인에 대한 제국의 감시와 통제라는 정치적 목적이 개개인의 미의식을 통어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사실 제국의 감시와 통제는 1910년대 강제 합병 이후 공공연하게 존재하고 있었으나, 근대적 지식 주체의 '개성'을 두드러지게 내세우는 세비로 청년, 모던 보이들에게 그러한 제국의 감시와 통제는 미감 추구라는 양복 착장과 모순을 일으키지 않았다. 양복을 착용하는 신지식층으로서 그들은 식민지 현실 곳곳을 지배하는 제국의 시선을 모방하며 제국의 주체에 자신들을 동일시함으로써 양복을 입지 못하는 다른 조선인들과 자신들 사이의 차이를 노정해 왔기 때문이다.

염상섭은 〈만세전〉에서 근대화와 식민화의 이중적 기획이 양복을 입은 신지식층의 자아의식과 타자로서의 조선인에 대한 '요보' 의식 사이의 균열을 나타내는 장면을 보여준다. 동경 유학생 이인화의 귀국과정을 그린 소설 〈만세전〉은 여정마다 임바네쓰, 학생복, 양복 경찰들의 감시가 따라붙는 현실을 묘사한다. 경성으로 향하는 기차에서 그는 식민지 조선의 다양한 타자들과 조우하며 그들과 자신 사이에 차이를 상정한다.

> 「웬걸요. (중략) 이러케 망근을 쓰고잇스면 「요보」라고해서 좀잘못하 는게잇서도 웬만한 것은 용서를해주니까, 그것만하야도 깍글필요가 업지안어요」하며, 껄걸 웃어버린다.「그러치만 가튼조선사람끼리라도 양복을입으면, 대우이다른것가티, 역시 머리라도깍는 것이 저사람들에게 덜천대를밧지안소. 언제까지든지 함부로 훗뿌리는대로 꿉적꿉적하고 「요봇」소리만 드르랴우?」[44]

머리 깎고 양복 입고 내지어도 하고 시체 학문도 있는 신지식층

44) 염상섭, 「만세전」, 『염상섭 전집』 1, 민음사, 1988, pp. 77-78.

청년과, 망건과 상투를 쓰며 '요보'소리를 달게 듣는 타자로서의 조선인 하층민 사이에는 민족으로 동일시 될 수 없는 차이가 가로지른다. 양복쟁이와 요보로 이원화된 피식민 조선인의 현실에서 머리를 깎느냐 안 깎느냐, 양복을 입느냐 안 입느냐 하는 외양의 문제는 철저한 감시-통제와 경멸적인 천대 사이에서 차별화된 식민지배의 원리로 작용한다. 양복을 입고 단발을 한 외양의 근대성을 획득함으로써 그는 제국의 근대 주체와 자신 사이에 동질성을 상정하는 한편 다른 조선 민중(요보)과는 결별해 왔던 셈이다.

이러한 양복쟁이 피식민 근대 주체의 논리에서 무엇보다 불합리하게 간주되는 것은 흰옷에 대한 편집증적 집착이다. 어떻게 보면 40년대의 국민복이란 흰옷에 대한 철폐, 색복에 대한 강제라고 보아도 과언이 아닌데, 이러한 움직임은 20년대부터 흰옷 폐지론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20년대 초반에 나타난 흰옷 폐지론은 흰옷의 쉽게 오염되는 단점 지적으로부터 출발해 비위생, 비합리, 비경제적이라는 비판을 가하고 유색화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흰옷 폐지 및 색의 장려 운동은 관 주도로 강경하게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색의 장려에 반발해 자살하는 사건이 생기기도 하는 등 완고한 저항에 부딪쳤다. "유행을 조화하는 현대적 청년들은 그 생활양식이 너무도 급변하는 반면에 이러한 보수적인 노인들은 역시 수백년 동안의 관습을 一朝에 내버리지 못함에"[45] 따라 양복 착용에 거부감을 보이지 않는 청년층은 색의 장려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보이지 않지만 '요보' 집단, 즉 '유행을 좋아하는 현대적 청년' 이외의 계층에 있어 색의 장려란 '일조에 내버리지 못'할 '수백년 동안의 관습'이기에 '생활의 유리한 것을 장려하는 의미에서' 설득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쉽사리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40년대 상황에서 국민복 착용 운동은 강제성

45) 「개벽평단-색의 장려와 자살소동!!」, 『개벽』, 신간 3호, 1935, p. 48.

을 가지고 흰옷 폐지와 색의 장려를 도모하며 전통복식을 폐기함으로써 모두가 저렴하며 실용적인 국민복(양복)으로 복식 통일을 이룰 것을 기획한다. 국민복에 대한 장려를 위해서 백의는 '결백'이라는 미의 표징이 아니라 우리의 무기력을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된다. "대저 백색은 무기력을 표시하는 것으로 그 최적 예는 패전군의 항복 표시가 백색기가 않인가"[46] 이에 따라 "장구한 間에 습관 전통이지만 시대의 요구 순응하야 단호 현재의 朝鮮服을 폐지하고 남자복은 통상복은 당국 제정 국민복, 작업복은 양복 작업복으로 부인복 及 영아, 아동복도 각각 실용적 양복으로" 바꿈으로써 우리 생활에 심리적 향상을 도모하고 활동력을 왕성케 하여 경제적 문화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된다. 국민복 착용 운동은 강제 동원된 유행을 통해 재래의 관습을 급격히 해체하는 움직임이며 이는 조선적인 것, 민족적인 것의 고유성을 외양의 영역에서부터 완전히 거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영화에서 보던지, 이야기나 또오 책에서 보기엔 퍽 로맨틱한 것 같더니, 저 흰옷들 말씀예요, 왜 저렇게 사뭇 못견디게스리 걱정스러 뵌대요?" (중략)
>
> "난 스미꼬상의 노스탈자는 없으니깐…… 그 대신 모주리 한 대씩 쥐어질러 주구는 싶어!"[47]

채만식은 〈냉동어〉에서 일본인 여성 스미꼬와 조선 지식인 남성 문대영의 대화를 통해 '흰옷들'로 지칭되는 무기력한 조선인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다. 스미꼬는 제국 여성으로서 흰옷 입은 조선인의 모습을 '퍽 로맨틱한 것'으로 보았으나 막상 현실에서 그것은

---

46) 김중근, 「전시 조선인 의복문제 - 의복제의 혁신 제의」, 『삼천리』, 1940. 12, p. 33.

47) 채만식, 「냉동어」, 전집 5, 창비, 1989, p. 403.

‘사뭇 못 견디게스리 걱정스러’ 보인다. 이러한 스미꼬의 인식에 대해 문대영은 ‘모조리 한 대씩 쥐어질러 주구’ 싶다는 파괴적 충동을 드러내는데, 이는 한편으로 그 흰옷들과 마찬가지로 무기력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성찰에서 나온 파괴 행위이다. 제국의 시선에서 ‘흰옷들’은 이국의 낭만성으로 환기될 수도 있으나 조선 지식인에게 있어 흰옷들, 즉 ‘요보들’이란 “졸면서 거리를 헤매”는 무기력과 패배주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압축된다.

흰옷 폐지, 색의 장려는 국민복의 실용성과 합리성, 경제성을 설복하는 의복개량 담론들과 이어진다. 〈몸빼 시시비비〉에서 채만식은 여성의 몸빼와 하이힐 차림에 부조화를 발견하고 비판을 가한다. 몸빼와 하이힐이 부조화한다고 보는 것은 몸빼의 출처부터가 “적의 공습이라는 비상 긴급한 경우를 위한 복장”이기 때문이다. 공습 상황에서 “활동을 민활케 하기 위하여 여자의 실용적이요 간편한 몸차림으로서의 몸빼”[48]인데 거기에 하이힐을 신는 것은 전혀 실용적이지 않다. 그러므로 채만식은 “생각컨대 여인은 별양 몸빼를 입기 위하여 입은 몸빼가 아니라 즉 방공적인 실용으로써 몸빼를 입은 것이 아니라 한갓 유행을 따라 호사거리로 몸빼를 입었음일시 틀림없었다.”(462)며 제복으로서 몸빼가 유행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을 경계한다. 이에 대한 비판으로 채만식은 “국민적으로 ‘몸빼미’를 하나 세우자는 것이다. 건전하고 실용적이면서 아름답고 맵시 있는 ‘몸빼미’를……. 건전하고 실용적이로되 보기 흉하니보다는 보기 좋은 것을”(466) 만들자고 주장한다.

건전하고 실용적이면서 아름답고 맵시 있는 국민복 만들기라는 모티프는 40년대 여러 소설들을 통해 나타난다. 가령 이태준의 〈별은 창마다〉에서 사치스러운 모던 걸 이정은은 가난한 건축과 학생 어하영과 연애함으로써 실용적, 생산적인 미의식에 눈을 뜨

48) 채만식, 「몸빼 시시비비」, 전집 10, 창비, 1989, p. 461.

고 경편한 의복을 지어 입는 것으로 자신의 미의식을 표현한다.

> 문뜩, 히틀러의 사진을 생각해 보았다. 그 위엄, 그 활동적인 것, (중략) 하이킹복이 가진 경쾌한 특성, 업무복이 가진 튼튼하고 능률적인 특색, 간호부복이 가진 위생적인 특색, 이런 장점들을 종합한 좋은 의미의 가장 첨단적인 양복을 맞후었다.[49]

그녀는 히틀러의 복장과 같은 실용적이고 굵직굵직한 남성적인 제복의 선에서 새로운 미를 느끼고 하이킹복, 업무복, 간호부복의 장점들을 종합한 새로운 양복을 맞추어 입는다. 이런 의복을 입음으로써 그녀는 아름답고 화려한 것만을 좋아하던 철없는 재벌가 여학생에서 벗어나 문화촌을 경영할 수 있도록 생산적인 지식청년으로 거듭나게 된다. 국민복은 '좋은 의미의 가장 첨단적인 양복'으로 간주되며 조직적으로 동원된다. 이러한 정은의 국민복 만들기 기획은 그녀가 신경 도시계획과에 부임한 어하영과 함께 설계하는 새로운 문화촌을 "집을 생활에 맞도록 지을 것이 아니라, 집을 가장 능률적이게 지어 놓고 생활을 거기에 맞도록 개혁할 필요를 깨닫게 된" 끝에 "재래의 살림살이를 전혀 무시하고 가장 간편한, 가장 일하기 좋은, 가장 견고한, 한번 불이 나도 치명적으로 타버리지 않게, 폭탄을 맞어도 가급적으로 중요 부분은 견디여 나가게, 처음 짓는 사람은 부담이 과정하드라도, 국가적으로 보아 영구한 좋은 집이 되게"(174) 설계하는 것처럼 전통적인 모든 것을 파괴하는 극단적인 개혁이며 비현실성을 노정한다는 점에서 문제를 나타낸다. 파시즘의 개발과 파괴, 건설과 개척의 급작스러움이 반영되며 외양을 둘러싸고 전체주의적인 통제가 개입하는 것이다.

---

49) 이태준, 『별은 창마다』, 이태준 문학전집 3, 서음출판사, 1988, pp. 121-123.

6. 결론

양복은 그 착용의 편의와 위생 때문에 식민지 시대 전반을 거쳐 별 어려움 없이 지식인 남성의 복식으로 자리잡아왔다. 그러나 식민지 근대화 과정에서 양복 입은 청년 또는 신사를 둘러싼 표상은 근대화의 당위성과 식민지의 억압적 현실 가운데에서 긍정과 부정, 이상과 현실, 희망과 절망 사이에서 다양하게 분열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양복과 양복 청년의 표상 변화가 가진 의미를 시대별로 면밀하게 분석함으로써 근대 소설 속 지식층 남성의 형상화가 가진 의미와 가치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근대 초기 프록코트 신사란 안국선의 〈금수회의록〉에서 보듯 사대와 수구로 대변되는 당대 봉건적인 사회를 개혁하고 서구 제국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개화 지식인의 상징인 동시에 '매국'의 기표로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또한 1910년대 상황에서 새로운 지식층 남성을 지칭하는 프록코트 '신사'는 물질적 서구화 가운데 정신의 변화가 따르지 못한 아노미 상태를 보여준다. 검약의 정신과 근면성, 금욕주의적 성향체계가 프록코트 신사의 이면에 자리한 학생복의 세계, 새로운 지식청년층의 표상이 된다. 1920년대 이후 근대 교육을 받은 청년의 규모가 커지고 졸업과 함께 학생복을 벗은 청년들이 사회활동에 뛰어들면서 양복은 새로운 남성상을 대변하게 된다. 양복을 유행하는 스타일에 따라 사 입으며 사회활동을 영위하는 젊은 계층을 일컬어 '세비로 청년'이라고 호명할 수 있는데 이들 계층은 박태원의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이나 채만식의 〈레디메이드 인생〉 등에서 보듯 학생복 청년의 비판과 선망의 대상이다. 1930년대 식민지 자본주의의 발달을 따라 자본주의 소비문화가 빚어내는 변화무쌍한 상품의 감각을 예민하게 포착하고 향유하는 모던 보이의 면모는 댄디의 멋을 보여준다. 찰나적이고 기분적인 도취의 세계, 청신한 감각의 세계를 절대시하는 모던보이는 이선희의 〈처의

설계〉에서 보듯 식민지 자본주의 근대 조선의 현실 가운데 벌 줄은 몰라도 쓸 줄은 아는 모조 가정의 세계를 절망적으로 지속하는 청년이다. 이러한 퇴폐성, 세기말적 데카당스의 의식은 한편으로 박태원의 〈적멸〉이나 이상의 〈날개〉가 보여주는 것처럼 식민지 자본주의 사회의 비생산적 면모를 건드린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양복이 근대 자본주의 소비 사회의 상품 미감, 개성이나 교양의 감각과 결부된 것인 반면 1940년대 이후 장려되는 국민복은 개성, 미감의 영역과 무관한 정치적인 의미를 가진 것이다. 40년대의 국민복이란 흰옷에 대한 철폐, 색복에 대한 강제로 나타났으며, 채만식의 〈냉동어〉나 이태준의 〈별은 창마다〉 등에서 흰옷에 대한 염증이나 개량복식에 대한 열정으로 형상화된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강경애, 이상경 엮음, 『강경애 전집』, 소명출판, 1999.
김기림, 『김기림 전집』 5, 심설당, 1988.
김남천, 정호웅, 손정수 편, 『김남천 전집』 2, 도서출판 박이정, 2000.
박태원, 『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깊은샘, 1991.
안국선, 『금수회의록』, 융희 2년, 황성서적업조합.
염상섭, 『염상섭 전집』 1, 민음사, 1988.
이광수, 『이광수 전집』, 삼중당, 1963.
이기영, 『가난한 사람들』, 푸른사상, 2002.
이상, 『이상문학전집』 2, 문학사상사, 1990.
이선희, 『한국근대단편소설대계』 23, 태학사.
이선희, 『월북작가대표문학』 5, 한국도서출판중앙회, 1989.
이태준, 『달밤』, 이태준 문학전집 1, 깊은샘, 1995.
이태준, 『별은 창마다』, 이태준 문학전집 3, 서음출판사, 1988.
채만식, 『채만식 전집』, 창비, 1989.

기타 〈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청춘〉, 〈학지광〉, 〈신여성〉, 〈별건곤〉, 〈개벽〉, 〈삼천리〉, 〈여성〉, 〈조광〉 등

2. 논문

김주리, 「식민지 시대 소설 속 해수욕장의 공간 표상」, 영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인문연구』 58, 2010, pp. 157–188.
조희진, 「근대적 복식 유행의 출현과 사회적 수용 : 식민지 시기 언론 매체 기사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3. 단행본

김주리, 『모던걸, 여우 목도리를 버려라』, 살림, 2004.
김진식, 『양복 100년사』, 미리내, 1991.
하야시 히로시게, 김성호 역, 『미나카이 백화점』, 논형, 2007.

[Abstract]

The Out-ward Show of Modern Men in the Discourses of Western Clothes and Modern Korean Novels at the Age of Colony

Kim, Jue-lee

This study aims to analize the discourses of western clothes and to search the meaning and value of narrating about suite-men, the intelligent men based on the variation of age in Modern Korean Novels from the age of Enlightedmant to 1940s. Like in An-Gukseon's 〈Animals' Meeting〉, a gentleman dress in a frock coat symbolizes both an intelligent man who asserted adoption of western civilization and a betrayer of his country. And he shows a situation of anomie between material westernization and mental change. At the other part of a gentleman dress if a frock coat, a intelligent man dress in a school uniform appeared his asceticism, economical mental and diligency. After 1920s according to increase in number, the intelligent became symbolized the youth dress in a saviro suite because they dressed in a new style expensive suite for their social activity after graduation. They were both criticized and adored in many works like Yi, Kwangsu's 〈Earth〉The modern-boy emerged on progress of colonial capitalism system shows both a style of dandyism and an aspect of decadence who enjoys an instant happiness of consumptional civilization in the works of Yi, Seonhee's 〈A wife's plan〉 etc.. While the western clothes linked with the sense of goods, culture and personality in the society of modern capitalism, the national clothes linked with the meaning of political regulation apart from the sense of goods or personality. So it appeared the fascism control about out ward show in the works like Yi, Tae-jun's 〈Stars in every window〉

Key words: The representation of a western clothes, the intelligent, a gentleman dress in a frock coat, the youth dress in seviro suits, a Modern-boy, a National clothes colored

김주리
소속: 한밭대학교 교양학부
주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동서대로 한밭대학교
전화번호: 042-821-1361
전자우편: juelee99@hanbat.ac.kr

이 논문은 2014년 11월 15일 투고하여
2014년 12월 08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12월 15일 게재 확정함.